

<학익에서, 바다로>

- ▣ 연출 및 지도 : 반승환
- ▣ 출연자 : 이재혁, 김태순, 민경자, 이정금, 임정숙, 송순심, 박성녀
- ▣ 등장인물 : 할머니, 손녀, 작업반장, 일꾼, 시간여행자들

학나래두드림 '학익에서, 바다로' 음향큐시트

▣ #1 현재 - MR 1.현재

손 녀 : 할머니, 할머니~

할머니 : 에구구 넘어질라. 조심조심.

학나래야~ 오늘 할머니와 특별한 여행을 갈 거란다

손 녀 : 특별한 여행이요? 그런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계신거예요?

할머니 : 우리를 특별한 여행에 데리고 갈 시간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지.

손 녀 : 시간여행자요?

할머니 : 그래. 학나래야~ 오늘 이곳에 시간여행자들이 오면 그들을 따라 과거와 미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단다

마칭 호루라기소리와 마칭연주 1

할머니 : 저기 오는구나 같이 따라가 보자. 그들을 따라 가자꾸나

손 녀 : 예! 할머니

▣ #2 과거 1(#1 현재와 연결 됨)

(도착한 곳은 과거의 동양제철화학)

마칭연주 끝난 후 2열로 정렬 - MR 2.과거(1)동양제철화학

작업반장 : 자, 자. 다들 모였지요?

오늘은 어제보다 주문물량이 더 많아요.

게으름 피지 말고 오늘도 국가를 위해서, 동양제철화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.

일꾼1 : 잔업두 해야 하나요?

작업반장 :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.

(작업시작 사이렌소리)

(마칭연주자들이 작업자로 변하여 각자 자기의 일을 난타로 표현한다.)

(작업기계소리, 시계소리)

(작업을 마치는 사이렌이 울린 후 상자를 버리기 시작한다.)

손녀 : 할머니, 할머니 저 사람들이 뭔가를 버리고 있어요.

할머니 : (스스름한 목소리로) 응. 저건 동양제철화학에서 물건을 만들고 난 폐기물이란단. 그건 필요없으

니 버리는 게지. 예구,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구나.

마칭연주2 끝난 후 마칭악기 내려 놓 (장면 끊어감)

▣ #3 과거 2 - MR 3.과거(2)빨래

(푸른 천으로 학익천을 표현한다. 물소리)

손녀 : 할머니, 저기 좀 보세요. 저기 시냇물이 흘러요. 어머, 작은 물고기들도 있어요.

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?

할머니 : 어디긴 어디야. 우리가 살고 있는 학익동이지.

지금은 높은 집도 많고, 차도 많지만, 오래 전에는 이렇게 물도 흐르는 곳이었던단.

아빠차 타고 여행갈 때 문학 IC 봤지?

오래 전에는 거기 문학 IC에서 법원을 지나 학익시장을 거쳐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저 넓은 바다로 이어지는 천이 있었어. 바로 학익천이지.

손녀 : 와, 학익천이요? 할머니, 할머니 저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.

할머니 : 응, 빨래를 하고 있구나~

시간여행자들 : 빨래다! 빨래! 얼른 빨래해야 해!

빨래 두 명, 빨래바구니 들고 등장, 방망이로 학나래두드림 난타 도입부분 연주. 강사가 스네어로 연주를 도와 줌

빨래연주 끝난 후(연주 끝에 손을 4번 든다) - MR 4.과거(2)수영

시간여행자들 : 빨래 끝~

손녀 : 할머니, 또 다른 것도 했나요?

할머니 : 그럼, 떡도 감고 수영도 했단다.

시간여행자들 : 수영이다! 얼른 수영해!

수영 두 명, 손에는 심벌즈를 들고 각자 자유형, 평형, 배영 등을 한다. 숨을 쉴 때 심벌즈를 연주한다. 강사는 스네어로 '볼레로'연주

수영연주 끝난 후(심벌즈 3번치면 끝) - MR 5.과거(2)물고기

손녀 : 할머니 할머니 또 다른 것은요?

할머니 : 물고기도 잡았지~

시간 여행자들 : 물고기도 잡았대! 물고기! 물고기!

물고기 잡이, 한 명은 족대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물고기를 발로 몬다. 강사는 스네어 '삼삼칠박수'연주

물고기연주 끝난 후(족대에 물고기를 잡고 두 명이 들고 좋아한다) - MR 6.과거 (2)개발

손녀 : 할머니 또요, 또 또

할머니 : 그러니깐 또 뭐했냐하면...

시간여행자들 : (손사례를 친다) 그만!~~~~~

기계음이 들린다. 모두들 어리둥절해 한다.

손녀 : 할머니 무슨소리에요?

할머니 : 개발이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오고 여기 인천 미추홀
에도 사람들이 넘쳐나니 집을 짓기 시작하는구나
여행자들은 물줄기 주위로 상자를 가져다 놓는다.

시간여행자 : 집을 짓자! 집을 짓자!

손녀 : (코를 잡고 막으며) 할머니, 이게 무슨 냄새예요? 냄새가 고약해서 숨
을 쉴 수가 없어요.

할머니 : 집을 짓고 생활 오페수를 그냥 학익천에다 버려서 물이 썩는구나.

시간여행자들 : 야! 냄새난데..... 덮자! 덮자! (덮개로 덮는다.)아파트도 짓자!(상
자를 쌓는다.)

▣ #4 장면 끊어 감 (마칭악기 착용) - MR 7.과거(2)복원

마칭연주 불협화음, 자동차소리, 경적소리에 갈팡질팡, 주저앉음

손녀 :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죠?

할머니 : 이게 무슨 일이야! 학나라야

손녀 : 예 할머니!

할머니 : 아무래도 학익천을 덮어서 그런가보다. 저 덮은 것을 걷어내야겠어!

손녀, 할머니 덮개를 걷어낸다

손녀, 할머니 : 영~차! 영~차! 영~차!

할머니 : 물도 맑게 해야 해!

손녀 :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아요

할머니 : (세워진 북을 가리키며) 학나라야, 저기에 있는 북을 힘껏 쳐서 시간여행
자들에게 힘을 줘야겠다.

복을 친다. 시간여행자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서 대형을 갖추고 출발을 한다.

마칭연주1 시작 후 움직이면 - MR 8.과거(2)퇴장

손녀 :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어디로 가요

할머니 : 용현갯골로 가나보다. 학나래야, 우리도 같이 가보자!

▣ #5 용현갯골 영상 - MR 9.용현갯골

할머니(목소리만) :용현갯골로 가는구나.

용현갯골은 학익천의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야, 넓은 바다로
나갈 수 있는 곳이지. 그 곳에는 저어새를 비롯해 많은 생명들이
살고 있지. 시간여행자들은 그 곳의 생명을 지키러 가고 있는 거
야.

손녀 : 예! 할머니!

▣ #6 조명이 들어오고 학나래두드림 마칭연주

대사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합니다. 연주소리는 라이브로 합니다.